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4년 1월 16일(화)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한국효문화진흥원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 소명 촉구 기자회견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사무처장) 채용 절차의 축소 및 인사위원회 임기 및 구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효문화진흥원원에 인사 내규,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을 청구 하였고, 신임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은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4. 채용절차의 축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대전 출자·출연기관으로 직원의 채용 및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5. 이에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 소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한국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심 사례 조사 결과

별첨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별첨 1. 한국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심 사례 조사 결과

-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채용절차 축소 과정
 - 2017년 7월 4급 직원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논술전형 - 면접전형
 - 2018년 1월부터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해 경찰 입건 등 논란
 - 연합뉴스 2018-01-23: 경찰 '채용비리 의혹' 대전 효문화진흥원장 등 8명 입건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3075551063>)
 - 2018년 7월 14일 대전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1급)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논술전형 - 면접전형
 - 2020년 8월 5일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1급)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2023년 9월 22일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1급)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신임 사무처장 채용절차 타임라인

2020년 5월 : 한국효문화진흥원 3대 인사위원회 구성 (임기2년 , 연임 1회 가능)

2023년 8월 : 한국효문화진흥원 3대 인사위원회 임기 종료

2023년 9월 : 한국효문화진흥원 4대 인사위원회 구성

2023년 9월 22일 : 신임 사무처장 공고

2023년 10월 10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명)

2023년 10월 12일 : 면접전형 실시 (면접위원 4인)

2023년 10월 17일 : 신임 사무처장 최종 합격 공고 (합격자 :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

- 한국효문화진흥원 **2023년 9월** 사무처장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 사무처장 채용절차는 왜 축소되었는가?
 - 사무처장 채용을 **2018년**에는 서류전형 - 논술전형 - 면접전형으로 진행
 - **2020년**에는 서류전형 후 필기시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 여부도 필기(**30%**)와 면접(**70%**)의 결과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2023년 9월** 사무처장 채용공고는 이전 절차와 다르게 서류전형 후 면접으로만 채용함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별 채용의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
 - 한국효문화진흥원은 기존 절차를 왜 변경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는 왜 새로 구성하였는가?
 - 3대 인사위원회는 **2020년 5월** 구성
 - 임기는 **2년** 연임 **1회** 가능
 - **2022년 5월** 경 연임하였다면 3대 인사위원회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로 봐야함
 - **23년 9월** 신임 사무처장 채용 공고 직전인 **23년 8월** 기존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고 **4대**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함
 -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왜 임기가 남은 **3대**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소명해야함

- 만약 기존 **3대** 인사위원회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라면 기존 인사위원 전원이 특정 시기에 사임하였는지, 진흥원 쪽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도 소명하여야 함

● 왜 보은인사 논란이 발생하는가?

- **4대** 인사위원회 중 **3인**, 면접위원 중 **3인**이 현 이장우시장의 인수위원회 출신이라는 구체적 제보사항 확인
- 신임 사무처장이 이장우 시장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음을 확인
- 교차 검증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년 12월** 한국효문화진흥원에 **4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효문화진흥원은 공개를 거부함
- **23년 10월 10일** 발표된 **2023년**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1급)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면 **11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확인 됨
- 한국효문화진흥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4대** 인사위원회와 면접위원 중 이장우 대전시장 인수위원회 및 선거캠프 관계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별첨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에 대해 소명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보자 A씨를 통해 한국효문화진흥원 신임 사무처장 채용 비리 의심 및 신임 인사위원회 구성의 부적절함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사무처장 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임기 등을 확인 했다.

2023년 9월 22일,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신임 사무처장 채용 공고문이 올라왔으며, 10월 17일 최종 합격자가 공고되었다.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4대 대전시의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선거 캠프에 소속되었던 것을 확인했다. 신임 사무처장 채용절차를 살펴보면, 사무처장 채용 절차만 축소되었고, 축소 과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 할 수 있다.

지난 사무처장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2018년 사무처장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필기시험(논술)-면접 시험 순이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인적성 검사)-면접 시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23년 9월 사무처장 채용 당시에는 서류전형-면접 시험만 진행하는 것으로 채용 절차가 축소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는 “개별 채용의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 별도의 채용 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신임 인사위원회 구성 또한, 석연찮은 과정이 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인사내규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났을 것이고, 1회 연임 했다면 2024년까지 임기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효문화진흥원은 2023년 8월 기존인사위원회 임기를 종료시키고, 신임 인사위원 구성 후 신임 사무처장 공고를 진행했다. 일부 인사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할 수 있으나, 특정 시기에 인사위원 전원이 사임하는 것은 효문화진흥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제보자 A씨는 신임 인사위원회 및 채용면접 심사위원이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구성 됐다고 제보했다. 신임 인사위원회가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구성 돼 선거 캠프 출신의 신임 사무처장 채용이 사실이라 하면 보은 인사 논란을 넘어 채용 비리 사건으로 확대 될 수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 2023년 12월에 효문화진흥원 인사내규, 인사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2023년 8월 이후 구성된 4대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를 거부 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4대 인사위원회와 면접위원 중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의 존재 여부와 그 비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함은 필수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대전시의 책임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직원(사무처장) 채용절차의 축소 과정을 소명하라
2. 한국효문화진흥원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면접위원을 공개하라
3.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인사 문제를 감사하라

2024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